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주간과 부활절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부활주일을 앞둔 지금은 고난주간이다. 이 기간 한인교회 성도들은 특별새벽기도회, 금식기도, 각종 절제 등을 통해 경건생활에 힘쓰고 있다. 이 기간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작게나마 동참하고 다시 사신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

교회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을 앞두고 본지는 남가주 목회자들로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의미와 이를 맞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등을 인터뷰했다.

먼저 벨앨장로교회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회 회장)는 “고난주간은

부활절과 연결이 된다.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이 임한다”며 “고난주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영생이므로, 이것을 붙들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영명 목사(OC교회 회장)는 “지난 3주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 설교했다. 사순절의 의미는 주님의 고난이 곧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라며 “특별새벽기도와 고난주일에 성찬식을 갖는 등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게 고난의 의미를 새기면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남가주왕성교회 안경찬 목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난주간에 주님의 무거운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부활주일에 가정별로 감사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

LA사랑의교회 김기섭 목사는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라며 “이 기간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희생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교회는 고난주간에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와 성금요 예배를 드린다.

GP선교회 미주대표 백운영 선교사는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성숙해 가야 한다”며 “다양한 행사를 경험하며 형식보다는 그 안의 깊은 의미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백 선교사는 올해 부활절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INTERVIEW

이 시대의 목회는 “평신도를 사역의 장으로”

100년 이상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LA한인연합감리교회.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교회에 김세환 목사가 부임한 지 5년이 지났다. 남가주 뿐 아니라 미주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이 교회에 당시 44세였던 김 목사가 14대 담임으로 부임한 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 바람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김세환 목사

김세환 목사는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나 감리교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감리교신학대학으로 진학해 감리교 목사가 됐다. 캔사스에 있는 세인트폴신학교로 유학해 공부하던 중 미주 이민목회에 접어들었다. “다른 것은 잘하는 것이 없어도 배우는 것만은 잘한다”고 자부하는 김 목사는 한국에서 10년, 미국에서 15년, 총 25년간 목회해 왔다. 이 기간동안 그는 늘 새로운 것을 주는 목회를 찾아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터뷰 동안 그는 “평신도를 사역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평신도들이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평신도들이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들이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사역을 주도하는 리

더로 성장하게 되고 교회에 변화와 성장이 도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신명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의 축과 새로운 축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회자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말고 성도들과 발맞추면서 겸손하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회는 그동안의 성장과 발전 사례를 인정받아 오는 5월 한인연합감리교단 전체의 행사인 전국지도자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그는 이 대회에 주제 강연을 맡아 “새로움”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전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운 비전과 갱신을 촉구할 계획이기도 하다.

→ 2면에 계속

탈북자 인권 위해 전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나선다

해외 300인 목사단, 북송 전면 중지 위해 4월 10일 전세계 50개 중국영사관에서 기도회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기 위해 해외의 300명 목회자가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4월 10일 오전 전세계의 50개 도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 시위 목적의 기도회를 연다. 이 기도회에 함께 하는 300명 목회자들은 탈북자들의 북송이 중단되길 기도하며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 300인 목사단은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이원상 목사(위싱턴중앙장로교회 원로), 손인식 목사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 민족 전체의 관심은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 형제, 자매들의 구출에 있다”며 “전세계에 있는 한인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국 정부를 향해 국제적 항의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매달 4백명이 북송돼 비참한 홀대를 받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정환(Son Ministry), 김영길(감사한인교회), 김인식(웨스트힐장로교회), 변영익(남가주교회 회장), 박희민(나성영락교회 원로), 송정명(미기총 대표회장), 손인식(베델한인교회), 한기홍(은혜한인교회), 강순영(자라 부대표), 엄영민(OC교회 회장), 민경원(OC교회 수석 부회장) 목사 등(사전 순) 남가주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고 말했다. 이들은 이 행사에서 북송 중단에 전 세계가 뜻을 모으도록, 북송

된 탈북자들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중국의 지성인들이 이 문제에 관여하도록,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가 이 일에 적극 개입하도록 기도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TAX 문제 전문 자산통계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법인세금삭감, 세무강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합의 \$8,218
Mr. Lemonnier, H	FTB \$118,874	합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합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합의 \$0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21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하나헬스보험에서는 1947년 메디케어 신청을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하나헬스에서 한인 시니어의 메디케어 신청시 도와 드리는 일

- 처방약 비용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EXTRA HELP PLAN)
- 귀하의 재산 그리고 소득에 따라 메디칼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MEDI-CAL)
- 메디케어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MEDICARE SAVINGS PROGRAM)
- 메디케어 플랜 부족분 보충 보증을 보장 하는 메디케어 파트 C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귀하가 복용하시는 처방약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절한 처방약 플랜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하나헬스는 한인 시니어의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디케어 플랜 가입 후의 모든 서비스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매주 토요일 11시 오전 각 사무실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1650KH) 전문가 컬럼 매주 화요일 오전/오후 10시 55분에 보다 많은 정보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WEBSITE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WWW.HANAHEALTH.NET
웹사이트에서는 보다 쉽고 빠르게 질의응답을 하실수있습니다.

한인 시니어 고객 서비스를 가장 중시하는 하나헬스건강 보험의 전화번호는
213-500-4563 1-855-386-3088

LA 사무실 DAVID KANG 3600 WILSHIRE BL 1620 LOS ANGELES, CA 90010
ROWLAND HEIGHTS 사무실 (5월 OPEN) ALLEN MIN 1722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OC 사무실 MI YOUNG HONG 6011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
TORRANCE 사무실 SARA IM 20695 S. WESTERN AVE #240, TORRANCE, CA 90501

렇게 관점이 변화되면 사역이 변화됩니다.

엘 고어가 쓴 책 중에 <불편한 진실>이란 책이 있습니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내 세대는 괜찮다고 하며 다음 세대가 그 재앙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비신앙적 행동입니다. 이 책은 바로 다음 세대에 대

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 중 하나는 젊은이는 젊은이를 전도하고, 노인은 노인을 전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젊은이를 전도해 오길 기대하지 말고 젊은이가 젊은이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님의 교회를 이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인교회의 평신도들을 보면,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인교회가 이들에게 거룩한 만족을 느끼게 해 준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행정적인 요구를 해 왔지 사역의 기쁨을 주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면 교회는 장로에게 현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번이지 계속 반복된다 보면 장로들은 "내가 돈 내는 사람이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그런 장로들이 과연 사역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교인들의 요구 읽는 다변화 목회 필요

전통과 새로운 축 함께 하는 게 관건

늘 배우는 태도로 목회해야

한 관심과 공동체적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인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있는 평신도들을 키워 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차세대에게 교회의 사역이 전수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을 교회가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Me & Mom이라는 자녀 양육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30대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물론 잘 되고요.

기독교는 거룩한 기쁨을 느끼게 해 주는 종교입니다. 행정적 장로들이 사역으로 나와서 직접 일을 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체계도 여전한 속제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역을 어떻게 맡길 것인지에 관한 고민은 체계도 적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평신도들이 사역의 장으로 나오면 그들 스스로 변화되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임 후 예배 분위기나 교회의 사역이 많이 변화됐나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체질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듯 합니다.

종교는 무브먼트입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종교는 신명나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 갈 맛이 나겠습니까? 이 맛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감격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감격을 느끼고 기쁨을 얻어서 살맛나게 해 주는, 그런 신명나는 바람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뜨거운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신명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의 축과 새로운 축이 함께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만 생각이 다를 뿐이란 것을 알게 되면 서로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지난 4년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느라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회자가 시간을 두고 진실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 줄 수 있다면 성도들도 목회자의 진심을 알고 협력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 다변화되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전도인데 전도대상자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등의 세대 차이가 커졌고 교회가 다양한 사역으로 이들에게 다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은 절대 금지하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목회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남에게 자신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될 때의 그 초심을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은 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재강연을 맡지만 그 외의 모든 순서는 타 교회에서 맡습니다. 행사 때의 찬양이나 성가대도 우리 교회가 아닌 지역 다른 교회가 맡게 되고 가능하면 회비도 아주 저렴하게 해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희생하려 합니다.

이 간혹 졸지 몰라도 저는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 졸지 않습니다. 졸 수 없습니다. 다 메모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벌써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답답이라고 목에 힘주려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금새 목사의 실력이 탄로나고 맙니다.

의 만찬을 직접 만들어서 교인들과 먹어 본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예법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고 배치하고 주님이 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 먹어 본 것인데, 아주 방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새로움과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평신도를 사역으로 불러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목사라는 전제 하에서 답한다면, 목사가 유약겸허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해 보이거나 겸손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목회라는 것은 자기 야심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

만약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다짐한 그 목표를 잃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들도 초청해서 다 함께 하는 축제의 분위기로 행사를 치러 보려 합니다.

가능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들도 초청해서 다 함께 하는 축제의 분위기로 행사를 치러 보려 합니다.

-보다 새로운 목회를 위해 조언해 주신다면.

캔사스에서 목회할 때는 고난 기간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인들과 함께 못을 박아 보기도 하고 또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 보기도 했습니다. 목사 가운데 임은 목사의 모습을 늘 성도들에게 보여 주지만 때로는 작업복을 입은 모습도 보여 줍니다. 기도과 말씀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만족과 도전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빠른 자동차 보험 알선

“전혀라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올해 5월 LA연합감리교회가 유치하게 되는 전국지도자대회는 한인 연합감리교회 중에서 모범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선정돼 그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타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에게 보여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지요?

이런 대회 주제는 Re+New입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에서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원래 웨슬리가 시작한 감리교 운동이 역사를 거치면서 퇴색된 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도해 이 행사를 유지하게 됐지만 교단 전체적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운동으로서 행사를 치르려 합니다.

목회자는 두 경계에서 있습니다. 거룩과 세속의 경계에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의 경계에 있습니다. 거룩하되 세상을 이해해야 하고 세상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목사가 사람들과 친밀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지 않아야 하고 기본을 다 유지하며 새로운 필드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앙생활은 무브먼트이고 곧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안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다 사람들과 멀어져서 안됩니다.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생활기초영어반 시작

3월 26일부터

문의: 그레이스 리 323.966.5444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Advisor@LAORT.edu | 323.966.5444

www.LAORT.edu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편리한 수업시간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www.LAORT.edu

-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 New York : Forest Hills Tel. 718.261.5800
- Chicago : Skokie Tel. 847.324.5588

장로도 목양 사역에 임할 수 있을까? 있다!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세리토스장로교회서 9월 예정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가 올해도 남가주 지역에서 열린다.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조찬모임이 29일 OC, 30일 LA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국제목양사역원의 최홍준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원로)는 올해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이 행사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컨퍼런스 홍보차 방문한 최홍준 목사는 "목회자들이 장로들에게 살으셔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하며 목회의 많은 것을 물려줬지만, 장로에 대한 것은 관련 책에서 찾지 못했다. 본질을 알리기 위해 목양장로사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목사는 "사실 목회자와 장로는 양을 보살피는 것이 본질이고, 행정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장로가 목회자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잘못이라 할 수 있다"며 "둘 다 기쁨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 컨퍼런스를 다녀간 교



은퇴 후 목양장로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최홍준 목사가 LA를 방문해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회들은 대부분 영적 질서가 잡히고, 장로들도 기쁘게 사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지난 9차 미주 컨퍼런스 영상 시청이 이어진 가운데 한 장로는 인터뷰에서 "목양장로 컨퍼런스 사역을 통해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은혜

를 받고 행복한 삶이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장로는 "교회에서 장시간 회의만 하게 되면 메말라지기 쉬운데 세미나를 통해 장로의 본질을 깨닫고 배움을 얻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찬모임은 사회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 상임본부장), 환영사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 회장), 송정

명 목사(미기총 회장), 인사말 변영의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대표기도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말씀 및 설명회 최홍준 목사, 축도 한기형 감독(미주성시화 상임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3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토마스 맹 기자

동성애 교육 반대 서명운동 OC목사회 직접 나서

PRE, Class Act 위해 한인마켓서 지지 호소



동성애 교육 저지를 위해 OC목사회 임원들이 직접 마켓에 나와 서명을 받고 있다.

동성애 교육 저지를 위해 오랜지카운티목사회가 직접 나섰다. 3월의 마지막날, OC목사회는 SB48 법안에 반대하는 PRE와 Class Act 서명 운동을 위해 풀러튼의 한 한인마켓에서 직접 서명을 받았다.

이날 이들은 마켓을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스를 만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PRE와 Class Act에 관련한 서명을 각각 120장 받았다. 목사회 임원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점심까지 싸왔으며 화성기에 대해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교육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목사회장 신중은 목사는 "동성애 교육에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하고자 이곳에 나오게 됐다"고 전하며 "이제 서명 마감일이 16일 정도 남았지만 끝까지 모든 교회에서 열심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간청했다.

빅터 박 기자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사명"

LA사랑의교회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예배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가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예배를 1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LA사랑의교회는 교회 탄생 5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2기 시무장로 6명, 제3기 안수집사 12명, 제3기 시무권사 13명과 명예장로 3명, 협동권사 2명 등 총 36명을 임직했다.

이날 예배는 남가주사랑의교회와 동부사랑의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임직자 대표로 답사를 한 김영만 장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임직자가 되겠다"며 "하나

님 말씀에 순종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는 영상축사에서 "마음을 다해 제자훈련에 힘쓴 모든 분들을 격려해 주고 싶다"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축사를 전한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빌딩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



LA사랑의교회 임직자들

도만을 자랑하길 소망한다"고 했다.

예배는 집례 김기섭 목사, 대표기도 박성규 목사(동부사랑의교회), 찬양 LA사랑연합찬양대, 설교 '부르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한성운 목사(나성남포교회), 권면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임시당회장), 영상축사, 특송 남가주사랑의교회 찬양대, 축도 고석찬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단기선교 기금마련 위한 찬양집회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 내밀자"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청년들이 올 여름 단기선교를 위해 모금 행사를 열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가 지난 30일, 앞으로 있을 단기선교 기금마련을 위한 찬양집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더드립찬양팀(안성진 목사)이 주관하고 랜디김밴드가 찬조출연했다.

이날 집회는 1부 '하나님의 사랑', 2부 '자기 자신 사랑', 3부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뤄졌고

살롬선교회에서 짧은 연극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전했다. 1부와 2부 사이에 안성진 목사가 "내 영혼을 살리는 세 가지 사랑"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안 목사는 설교에서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살리는 힘이 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회 청년부는 이번 여름 동남아시아로 단기선교를 간다.

빅터 박 기자

피종진 목사 초청 부흥집회 성료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엠마오장로교회(김민섭 목사)에서 남서울중앙교회 원로목사인 피종진 목사 초청 부흥집회가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 금요일부터 지난 1일 주일까지 있었다.

지난 31일 오후 7시 30분 저녁 집회에서 피 목사는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에 근거해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피 목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

해서 기록돼 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고 전하며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항상 기뻐하라'는



피종진 목사

것이다.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을 전하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설교를 마쳤다.

집회의 사회는 김민섭 담임목사가 맡았고, 집회 후 자녀들을 강단에 불러 모은 뒤,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시간도 마련됐다.

빅터 박 기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11:25)



담임목사 박신철



부활주일 예배
성찬예배
Easter Sunday
2012년 4월 8일(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EM 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Inland Church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Tel. (909) 622-2324 / Fax.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머나 교회와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8-11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계2: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여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북쪽으로 약 2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에게 해를 향하여 세워진 항구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밀레도, 그리고 서머나가 3대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진이 잘 일어나서 그로 인해 도시가 잿더미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소아시아를 침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곳을 먼저 침공하여 전술, 전략적 요새를 삼았기 때문에 상당히 환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로마제국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많은 돈을 들여 서머나 항구도시를 튼튼한 도시로 재건했는데 그 후 그곳 사람들은 황제를 신성시하는 폐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당하게 하는 울무가 되고 훗날 순교자가 생기게 되는 문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고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였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물약 성'입니다. 물약은 관목이라는 나무를 여러 조각을 내어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쪼개서 나무의 수액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수액에서 추출해 낸 것이 물약입니다. 이것은 방부처리를 하는 용도나 향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물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며 죽임을 당하시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물약 성'이란 이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에서는 예수님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지상교회에 파송하시고 세우시고 불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자(아포스톨로스)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과 그 목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교회를 가꾸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교회의 사

명 따라 다양하게 불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서머나 교회를 두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자신을 이처럼 표현하신 것은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신 말씀입니다.

2. 고난에 관한 주님의 속 뜻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하신 말씀은 육신적인 기준에서 그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가난했고 환란을 많이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영적 소망의 믿음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서 상당히 부요한 교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자들이 자신들을 할례 받은 자들로 유대인이라 자칭하며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며 교회를 훼방하고 대적, 핍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이 고난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환란을 겪고 고문과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환란을 불어넣으실 진짜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 짓는 일을 하시는 것이기에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십 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 일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또 한 가지는 다소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환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 성과를 기대하시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그 환란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3.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하십니다. 죽음으로 온전한 믿음과 충성을 보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잘 믿었던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희생양으로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순교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살리시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정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믿고 목숨까지 완전히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했는데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모든 교회에 알려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죄악과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며,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11-15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심판받고 지옥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어린양의 보좌 앞에서 그 행위록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8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했습니다.

즉,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가는 일을 면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4.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들

서머나 교회 교회학교에 치아파닉이라는 12살 된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 황제를 신성시하여 황제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제단에 절하게 만들었는데 아이는 절하지 않고 그냥 서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 이시며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요 그분을 섬겨야 할 임당입니다"며 단단히 말했고 이로 인해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는 "제가 사자 굴에 들어가서 이 육신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당신들이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엄청난 형벌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고 말하며 사자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그들은 그 교회 지도자인 폴리갑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A.D 155년에 그도 화형을 당함으로써 순교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A.D 105년경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 두려워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순교적 각오로 구원성공을 위한 사명에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어쩌보면 이런 훌륭한 목사를 두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폴리갑의 이러한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 당당한 믿음으로 순교했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선교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 쓰임받자"	
해외선교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부활절 특별행사를 위한 무선마이크 조명 스테이지 렌탈해 드립니다

Customized Solution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달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을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Laservision, AVLgear, wori.com, JVC, Sennheiser, Shure, Bose, Tascam, Sony, Sanyo, Canon, JBL, Meyer Sound, ETC, bogen imaging, NEXO, ROBE, EAW, SONY, SANYO, SHURE, CHRISTIE, EDIROL, DIGICO, AVIOM, LEVITON, Martin, Panasonic, DALI, Extron, SHARP, SENNHEISER, JVC

“선교사가 되는 것은 축복이다”

이동휘 목사, 8가지 선교사 유형 통해 선교로의 삶 비전 제시해

소망장로교회(성요셉 목사)가 이동휘 목사(전주안디옥교회 선교목사)를 초청, 부흥회를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이동휘 목사는 1일 주일예배에서 '세계로 출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마 28:18-2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목사는 서두에서 "구원이란 물에 빠진 자를 구해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밖에 없다"고 말씀을 시작했다.

이목사는 이날 8가지 선교사에 대해 설명하며 성도들에게 선교에의 도전을 심어 주었다.

그는 "첫번째 해외선교사가 있다.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두번째 부모선교사가 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우는 것도 선교다"라며 "선교는 꼭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동휘 목사는 "또 기도선교사가 있다.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의 한계를 부수고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 물질선교사와 직장선교사도 있다. 우리는 물질로 선교를 돕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 하



이동휘 목사가 선교사적 삶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나눔에서 나를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믿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목사는 가족선교사와 문화선교사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 모임이나 청년집회, 여름학교 코스 일정에 맞춰 한국의 가족이나 조카를 초청해서 보내면 100%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게임보다 일주일에 3시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올리길 바란다. 그러면 10만 이상의 클릭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목사는 길거리선교사를

설명했다. 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행위를 보고 교회 나가기를 관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동휘 목사는 1983년 미군들이 쓰던 창고 구조물을 개조해서 전주안디옥교회를 세웠다.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살자"라는 특이한 구호를 내세우며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선교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제 16기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 훈련 수료 감사예배



상담봉사원 과정을 수료한 이들이 상담자의 본분을 재확인하며 선서하고 있다.

제 16기 미주생명의전화(대표 박대윗 목사) 상담봉사원 훈련 수료 감사예배가 지난 27일 화요일 저녁 7시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에서 있었다.

설교는 제6기 상담봉사원이기도했던 서오석 목사(나성평화교회)가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서목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도 이곳에서 상담봉사원 과정을 수료한 후 상담봉사원으로 일하며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던 체험이 목회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이 저녁에는 이런 저런 사람들의 신음

에 슬픔으로 눈물이 나지만,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오는, 하나님의 축복된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들이 되길 바란다"며 설교를 마쳤다.

예배 중 제 15기 상담임상 수료자들 26명 중 6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고, 제 16기 상담봉사원 교육 수료자 이경희 권사(16기 회장) 외 45명이 상담봉사원 선서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예배 인도자는 박대윗 목사가 맡았고, 대표기도는 제 14기 상담봉사원이었던 조정훈 목사가 맡았으며, 축도는 미주생명의전화 운영위원인 이용덕 목사(LA번영장로교회)가 맡았다.

빅터 박 기자

“7전 8기의 은혜” 신섭 장로 초청 간증집회

'7전 8기의 은혜' 저자 신섭 장로 초청 간증집회가 지난 1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남가주 왕성교회(안경찬 목사)에서 있었다.

신 장로는 두차례 간증집회에서 시편 119편 67절, 71절로 '고난이 유익이라'라는 제목과, 잠언 24장 16절로 '7전8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간증했다.

신 장로는 간증에서 "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풍요롭게 자라났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서울로 상경해야 했다. 그러나 죽도록 일한 결과 6년만에 약품도매상, 운수업, 건설업 등에서 누구못지 않은 부를 다시 누리게 됐다. 그러나 사업이 부모를 맞이하며 자살을 시도하고 2차례 기도원에 들어갔다. 처음엔 기독교인들이 미친 사람들 같아 보이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느날 산 기도에 갔다가 42세

나이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각오했다. 당시 그는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전집을 판매하는 사원이었는데 책을 팔기 전 복음을 먼저 전하는 등 열심을 보였다. 그래서 전세계 영업 사원 중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일 이후 그는 택시 기사를 하며 1년 6개월간 택시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 현재는 고난과 재기를 통해 더욱 연단된 모습으로 (주)더존비전, (주)지오산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며 간증집회를 다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면서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기 보다 신앙을 물려 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회의 인도는 안경찬 목사가 맡



7전 8기의 주인공 신섭 장로가 고난과 재기에 관해 간증하고 있다.

았고, 축도는 미주기독교방송 사장인 남철우 목사가 맡았다.

문의: shinshup@hanmail.net

빅터 박 기자

헨델의 메시아로 은혜와 사랑 나누

“음악 통해 타민족과 한인 하나되길 소망”



글로벌메시아미션이 타민족과 함께 헨델의 명곡 메시아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다.

지난 1일 주일 오후 5시 미국인 교회인 아르메시아-세리토스 연합 감리교회(이석부 목사)에서 글로벌메시아미션(대표 송정명 목사) 주최로 '헨델의 메시아' 찬양예배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집회는 한인과 타민족을 연결하는 의미있는 공연이었고, 한인보다는 타민종이 반 이상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예배 후 노령건 상임지휘자는 "이곳에서의 공연은 정말 두렵고 떨렸다. 타 커뮤니티와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며 공연에 임했다. 4.29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 등 소외된 곳에 가서 공연해 그들과 한인들을 하나되게 하는 접촉점이 되고 싶다"고 고

백했다.

예배는 첫째 예언과 탄생, 둘째 수난과 속죄, 셋째 부활과 영생,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이뤄졌고, 파르타다 공연에 앞서 이석부 목사가 간단히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OCYC(오케스트라캘리포니아소년 소녀합창단)도 찬조 출연해 더욱 맛을 더했다.

한편, 글로벌메시아연합찬단은 오는 21일 울타리교회에서 주관하는 흑인커뮤니티와의 만남의 자린 서든미니스트리점례교회(Rev. Xavier L. Thompson)에서 공연할 계획이고, 5월도 타 커뮤니티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빅터 박 기자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산다

가정 사역자 훈련 코스 세미나 개최돼

미주 두란노 세미나팀과 FBM(Family Builders Ministry, 대표 금병달 목사) 공동 주관으로 연애공식, 부부행복공식의 저자인 금병달 목사, 금정진 사모 부부를 강사로 초청한, 가정사역자 훈련 코스가 지난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주 두란노서원에서 5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열렸다.

금 목사는 "현 이민 사회 가정 안에서 겪는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가정사역자 훈련이 절실히 필요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고, 가정사역의 개관과 대화법, 커플 관계 온라인 진단방법, 그리고 위기

(이혼/사별) 가정 회복을 위한 13주 소그룹 인도 과정을 소개했다.

이 훈련에서는 청소년과 미혼을 위한 프로그램인 데이트 세미나, 순결교육, 청년을 위한 예비결혼학회, 혼전 상담, 기혼 부부를 위한 신혼부부교실, 수유교실, 태교교실, 부부성장학교, 자녀양육세미나, 노년을 위한 경로학교가 소개되었다.

문의: 714-287-2458, www.family4family.com

빅터 박 기자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5)



담임목사: 박영배

주일예배 (KM) 오전 11:45
 주일예배 (EM)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1430 E.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1
 Tel. 714-526-6562, Fax. 714-526-6572
<http://www.nlmfullerton.com>

친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본전 1:3)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사생대회
 밸리크리스천스쿨
 2012년 6월 23일
 장학봉 목사(성안교회) 초청 한어를성령축제
 2012년 7월 16일~22일



회장: 손찬우 집사

부회장	신교부장
손영혜 권사	채은자 권사
박우진 집사	
황성삼 집사	음악부장
홍기용 집사	이광열 집사
총무	체육부장
서준석 집사	조성용 집사
부총무	홍보부장
장광진 집사	서소희 전도사
조성용 집사	
회계	예배부장
린다 한 집사	이범규 집사
사기	EM 부장
이광열 집사	피터 박 집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P.O. Box 272 Garden Grove, CA 92842
 Tel. 714-719-5312 서준석 총무

샘의료복지재단이 국제NGO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 박세록 장로의 사역 보고 및 선교 편지 “고난 속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미국과 한국에 이어 호주, 중국에까지 사역이 확장된 샘의료복지재단. 현재 2000명 어린이들의 겨울나기를 도울 물품과 6만 봉지에 해당하는 영양과자를 북한에 전달하고 직접 분배하는 사역을 준비 중에 있다. 이 모든 사역은 전세계의 1만명 기도회원과 후원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다. 샘의료복지재단은 때론 갖가지 박해와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 안에서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 샘의료복지재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고백과 함께 오늘도 동역자들과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1997년 샘의료복지재단(SAM Care International)이 미국과 한국에서 창립된 이후에 이제는 미국, 한국, 호주, 중국, 그리고 영어권까지 자체 본부를 가지고 그 현지 법에 따라 법인을 운영하며 한 개의 단체로 공동 목표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국가에 본부를 두는 구조는 북방선교를 위하여서는 가장 알맞아 “전천후 사역”을 감당하기에 최선입니다. 북한이 자체 사정에 따라 어느 때는 재미 동포들을, 다른 때에는 한국 사람들을, 또 때에 따라서는 호주 또는 미국인들만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본부에서 사역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2000 북한 어린이 겨울나기 돕기 운동은 중국 현지인들이 2000 세트의 겨울나기 물품과 6만 봉지의 영양 과자를 직접 전달, 분배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중국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1만 명이 넘는 기도회원과 후원자들이 유럽까지 세계 각국에서 모였고, 약 100개의 교회들이 각처에서 돕거나 공동 사역을 하고 있는 NGO로 성장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 전하기와 생명 살리기를 위하여 묵숨 걸고 다니면서 집회와 강연, 그리고 모임들을 하면서 쉴 틈 없이 달려 왔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병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구제는 사람들이 마음만 열리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복음 전하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특정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인내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진행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언제까지든지 기다리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2000년 4월 단동병원을 개원하고 최초로 많은 때는 20-30 가족의 선교사들과 봉사자들을 포함하여 80-90 가족의 직원들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단체라면 거리적으로도 멀고, 서로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1만 명의 회원들을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난 15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생명을 살리는 구제와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제자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 나서 이제는 이 영혼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한국의 정규 신학교와 연결이 되어 1

년 과정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고 사역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북한과 중국을 상대한다는 가장 힘든 환경에 내부적으로 이견이 일어났고, 이 틈새를 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방해와 분열로 일부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가슴 아픈 일로 지난 6개월 동안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단동병원을 새로 건축하여 단동 시내 한가운데로 이전, 개원하였고, 죽어 가는 어린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식품 치료제를 한국 굴지의 식품 회사의 도움으로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강변 지역에 민들레민족학교를 설립하

여 100여명의 학생으로 아름답게 시작하게 되었고 맞은 편 강 건너의 학교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다시 돌아 보게 되었고, 깊은 속에서부터 우리 나오는 회개를 하게 하신 것이 큰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뚫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고,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고, 세미한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알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광대한 큰 그림을 보시고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핍박도 받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새 힘으로 더 달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단동병원은 현대식 “건강검진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PAC System을 갖추어 한국의 센터와 순식간에 연결이 되고, 즉시 모든 검사 결과의 판독이 전달 되면 의료진들의 진단이 한국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 질 것 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지금 중국에서도 헬스 클럽이 유행처럼 번져나갑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우리의 건강검진센터는 중국에서 최초의 예방의학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단동병원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중상모략과 핍박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를 믿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많은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나와 우리 팀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이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목숨이 다 하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박세록 장로 올림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겨울나기 물품과 영양과자가 직접 북한으로 전달, 분배된다. 사진은 전달에 앞서 물품을 싣고 있는 샘의료복지재단의 사역자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4-25)

담임목사 진유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 공동체

주일대예배 / 장소:본당

1부 주일오전 7:45	2부 주일오전 9:30	3부 주일오전 11:30	4부 조용기 목사 영상 주일오후 1:30 장소: 권사회실
-----------------	-----------------	------------------	--

수요예배 19:30
금요일예배 19:30
새벽예배 05:30(월-토)
EM주일 11:30
한어청년부 14:00
한어중고등부 10:30(주일) / 19:30(금)
영어중고등부 09:30(주일) / 19:30(금)
주일학교 09:30 / 11:30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913-4499 Fax(323) 913-4494 www.lafgc.com E-mail lafgcusa@yahoo.com

갈보리선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1:00
 유초등부 / Youth Group 오전 11:00
 E.M. Young Adult / K.M. 청년부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담임목사: 심상은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229-8492

남가주광염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 예배 오후 7:30
 성경공부 (화) 오후 7:30 / (수)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1부 오전 5:30 / 2부 6:30
 (토) 오전 6:30



담임목사: 정우성

4009 Wilshire Bl. #100-B Los Angeles, CA 90010
 Tel. 213-598-0191

남가주왕성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5



담임목사: 안경찬

2500 Wilshire Bl. #700. Los Angeles, CA 90057
 Tel. 213-819-8811

벤엘장로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00
 구역예배 (금) 오후 8:00
 십자가기도회 (금) 10: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담임목사: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7-1733 Fax. 343-931-2836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1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주일학교 오전 11:00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담임목사: 신원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소망장로교회

한 영혼을 주님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담임목사: 선요섭

520 S. La Fayette Pl. #400 Los Angeles, CA 90057
 Tel. 213-487-2481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담임목사: 강산권

170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97 Fax. 310-793-2298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중고등부예배
 2부 오전 9:45 오전 11:45
 3부 오전 11:45
 영아예배 오전 9:45



담임목사: 고승희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el. 626-810-3455 Fax. 626-964-5559

영광빛복음교회

주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담임목사: 우대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el. 213-291-5901, 714-833-2568

Easter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25~26)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10: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평일) 오전 5:30
 (토,주일) 오전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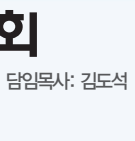
담임목사: 엄영민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el. 714-891-2029 / www.oc1church.com

월튼한인장로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서 봉사하라

주일예배 오전 10:30



담임목사: 김도석

470 N.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04
 Tel. 323-469-5959

충현선교교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담임목사: 민종기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el. 818- 549-9191

토랜스조은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00
 3부 오전 11:30
 4부(E.M) 오후 1:15
 5부 청년부 예배 오후 3:00



담임목사: 김바울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el.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생명의 말씀사 OC

미주 기독교 최대 서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 1:3)



대표: 전연철 목사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0-2211 Fax. 714-530-8080

한솔종합보험(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11:25)

www.hansolins.com



대표: 황선철 장로

3598 Beverly Blvd. LA, CA 90004. Lic. # 0E52100
 Tel. 800-300-0703, 213-487-4900

글로벌메시아미션

대표: 송정명 목사 상임지휘자: 노형건
 이사장: 장경선 이웃리치: 베리 리
 지휘: 김선욱 단장: 전정례
 사우스메시아여성합창단 부단장: 박남조
 O.C.메시아여성합창단 부단장: 박광순
 북가주메시아여성합창단 단장: 임승래



대표: 송정명 목사

1046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936-2567 / www.rohhyungkun.net

샘의료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
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대표: 박세복 장로

Sam Care International
www.samecare.org

1309 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el. 213-447-8169 Fax. 213-381-1506

GRACE SILVER MINISTRY CENTER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엡6:1-3)



대표: 최병수 목사

15144 Genova Ct. Chino Hills, CA 91709
Tel. 909-802-5857, Fax. 909-597-3601

남가주연목회

회장: 정요한 목사
수석부회장: 김영일 목사



회장: 정요한 목사

158 S. Western Ave. #102 Los Angeles, CA 90004
Tel. 213-422-9191, 213-703-5697

CMF선교원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대표: 김철민 장로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el. 562-483-0191, 714-493-0191, 562-684-4422

호사랑선교회

- 관계회복교실
- 효도대학
- 독거노인후원 드라마에배
- 효 캠페인



대표: 김영찬 목사

www.hyosarangus.com / pyckim@gmail.com
Tel. 714-670-8004 Fax. 714-670-8035

국제장로회 연합신학대학

깊은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웹스트린스터 신앙교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인품들을 양성



총장: 정영수 목사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리폼드대학교 신학대학원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이사장: 전요한 목사
총장: 조주호 목사
교무처장: 김원락 목사



총장: 조주호 목사

1342 W. Adams Blvd. Los Angeles, CA 90007
Tel. 818-337-8280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총장: 류종길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www.aeui.org

VIOLA / 비올라선교대학

정시/수시(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Min., D.Miss., Ph.D.)
1-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총장: 이길스 목사

7605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213-610-4989 / www.vision.edu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연대 목사
수석부회장: 김영모 목사
총무: 허귀암 목사
회계: 양석용 목사
서기: 김수재 목사

사우스베이목사회

회장: 김관중 목사
총무: 구진모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마28:7)

동부교역자협의회

회장: 김민섭 목사(엘마오장로교회)
부회장: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총무: 전병주 목사(나성환미교회)
회계: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서기: 박승규 목사(동부사랑교회)

벤추라교역자협의회

회장: 최상훈 목사(벤추라감리교회)
 총무: 이상훈 목사(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회원교회:
 다우전목스완인민교회(이종수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새생명장로교회(이태호 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김진태 목사)
 웨스트레이크인민교회(오정택 목사) 옥스드한인연합감리교회(박민규 목사)
 리빙스톤교회(정준호 목사) 옥스드한인교회(김진국 목사)
 씨디엘리안교회(반재근 목사) 벤추라감리교회(최상훈 목사)
 씨디엘리안교회(트루세빌교회(장승중 목사) 엘린문장로교회(김경숙 목사)
 엘린문장로교회(이윤호 목사)

인랜드교역자협의회

회장: 박해성 목사(남가주헬로십교회)
 총무: 류수열 목사(한울림교회)
 회원교회:
 갯스윌교회(이희철 목사) 인랜드영락교회(박종길 목사)
 남가주헬로십교회(박해성 목사) 인랜드문리교회(이원철 목사)
 두란노교회(송순현 목사) 한사원교회(안신기 목사)
 안양교회(유영진 목사) 한울림교회(류수열 목사)
 에덴산교회(윤석길 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박재준 목사)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 Grace Silver Ministry(최병수 목사)

샌퍼난도밸리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

회장: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부회장: 이준우 목사(밸리커뮤니티교회)
총무: 서중은 목사(새생명중앙교회)
서기: 김영일 목사(밸리중앙장로교회)
회계: 문일영 목사(한우리장로교회)
상임위원: 김원락 목사(양리문교회)
친교부장: 나형길 목사(그이름교회)

중부지역교회협의회

회장: 곽소건 목사(새순커뮤니티교회)
부회장: 박상열 목사(반석교회)
황에스터 목사(미주순환성결교회)
총무: 전동은 목사(청소년비전센터)
부총무: 노광조 목사(감사한인교회)
서기: 차권희 목사(싸이프레스삼성장로교회)
회계: 김순욱 목사(스텐튼감리교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15:20)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예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성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라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김재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 오후 7:00 (말-목)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

나성소망교회
제자사역, 건강한중형교회, 행복한가정

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550-7377 / lahope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살포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목)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약속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수요일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rdm.org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6:30 (토)
유치,유년부,중고등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승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마리 김 선교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뉴월드임마누엘교회

1234 W. 7th St., Los Angeles, CA 90017
T. (909) 993-4842, (909) 993-2157

1부예배 오전 8:00 한이청년부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9: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45 EM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자비로우신사랑을 뜨겁게사랑하며사는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30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 40:31)

1069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말-금) / 6:00 (토)

벤처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택과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 F. (310) 793-2298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말-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ilovepcp.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운타운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상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시온성중양교회
은혜, 사랑, 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수요일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인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침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힐) 수요일 오후 7:45
오후 12:3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말-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386-2233 / F. (213) 386-2243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세계 오순절교회

2020년 1억명으로 성장 목표

AG세계대표 뉴욕회의... 조용목·김남수 목사 참석



이번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는 28일 프라미스교회에서 저녁찬양을 함께 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세계 오순절교회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World Assembly of God Fellowship-WAGF)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와 월도프아스토리아에서 열렸다. 아프리카,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대륙별 대표 35명과 AG본부 팀 30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한국인으로는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가 AG본부 대표단으로,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 세계 하나님의성회를 2020년까지 50만 교회 1억 성도로 성장시킨다는 큰 목표를 정했다. 현재 세계 하나님의성회에는 35만 교회와 6천5백만 성도들이 소속돼 있다. 대표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시기를 맞아 오순절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점과, 21세기 세계 교회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힘쓰면서 배가운동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대표들은 2014년에 100주년을 맞는 미국 하나님의성회의 기념행사를 돕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세계 재해지역의 효율적 구조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선교가 특화된 프라미스교회의 사역이 소개돼, 세계 오순절교회 대표들의 관심을 모았다. 어린이 사역이 특화된 프라미스교회는 무슬림 국가 등 전 세계 복음을 듣지 못한 어린이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남수 목사는 "전 세계 18억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린 시절 교육하지 않게 되면 세속화 물결에 휘말려 많은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며 △파워하우스를 통한 지역사회 섬김 사역 △뮤지컬 'His Life' 공연을 통한 문화 사역 △축구를 통한 스포츠 사역 △영양교육을 통한 교육 사역 △에를레시아를 통한 영성 사역 등 프라미스교회의 선교전략을 설명했다. 35만 명 성도, 37개 지교회 규모의 한국 은혜와진리교회가 소개되는 시간도 있었다. 조용목 목사가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성장을 이끌었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한 데 대해 오순절교회 대표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대원 기자

“공연 완전취소” 요구하는 네티즌 늘어나... 불매운동까지

동성애 신이라는 레이디가가 콘서트 논란

레이디가가 콘서트가 만 12세 이상 관람가에서 만 18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이 조정됐다. 현대카드는 레이디가가 공연과 관련, "3월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6 레이디가가 내한공연 관람등급이 만 12세에서 만 18세 이상(1994년 4월 27일 이전 출생자) 관람가(단, 고등학교 재학생 관람불가)로 진행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공연장에서 나이를 식별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제시한 후 현장에 설치된 성인인증 부스에서 별도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입장이 가능하다"며 "부모님이나 보호자를 동반 하더라도 연소자는 본 공연의 입장이 불가능한 점에 관람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레이디가는 피로 물든 고기로 옷을 해 입거나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동성애 미화 및 권장·지지 등 각종 영적 공연 내용에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현대카드의 대응 방식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 "잠재 고객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온라인상의 공연 취소운동은 현대카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드 디자인 변화 등 뛰어난 마케팅 기법을 선보여 왔으며, 지난해 헤강 사태 때도 즉각 사죄했던 정태영 현대캐피탈 대표마저 평소 SNS로 활발히 소통하던 것과 달리 네티즌들의 수많은 질문을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대용 기자

더구나 이번 공연은 '문화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 오히려 주 고객층 중 일부라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영상물등급위, 연소자 유해공연물로 판정

현대카드 측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결정'이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주 초에 이미 이 결정이 현대카드 측에 통보됐다고 한다. 그러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상에서 레이디가가 공연과 관련한 현대카드 불매운동이 급격히 확산된 시기와 일치, 영등위 결정이 실제 이유가 아니라 극심한 반발 때문에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대카드 홍보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등위 심의결과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며, 한 마디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존중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며 "반발 때문이었다면 결정이 더 빨랐거나 더 늦어지지 않았겠나"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영등위 관계자는 "영화 등과 달리 공연의 경우 12·18세 이상 등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연소자 유해성이 있을 없음으로 해당 주최측에 통보한다"며 "연소자 유해 공연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보팀 관계자의 답변이 틀린 셈이다.

레이디가가 공연이 연소자 유해 공연물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구성상 레이디가가 공연 레퍼토리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곡들이 나오고, 샘플로 제출된 영상물에도 무대의상 노출이 많으며 춤이나 여러 동작들이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레이디가가 앨범 표지 앨범 속 가사에는 예수님을 반역한 가롯 유다를 사랑한다는 말과 음란한 여러 내용이 들어 있다.

현대카드 측은 영등위 통보 후 3-4일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환불 대상 고객들에게 알리고 환불을 실시하는 시스템 구축에 걸린 시간"이라고, 2-3일 걸린 것이라며 "저희도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까지 19세 미만 예매자는 5백여명이나, 성인들의 카드로 대신 구매할 수까지 합하면 전체 환불규모는 예측할 수 없고, 환불 대상 고객들께는 정중히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기독교 신도들이 항의하고 있지만, 이번 공연은 고객들과의 약속이고 레이디가가 공연을 좋아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객과의 약속·이티스트와의 약속 차원에서 공연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윤리·종교의 영역과 대중문화·예술의 영역은 다른 문제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 주시고, 저희는 더 좋은 금융 서비스와 카드 서비스로 보답하는 길 밖에 없다"고 답했다.

현대카드의 이번 등급조정으로 본격적으로 불발기 시작한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불매운동이 사그라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령 조정에도 불구하고 "공연 완전 취소"를 부르짖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용 기자

MD교협, 동성결혼법 반대 청원 운동 시작

메릴랜드 결혼연맹과 협력, 한인사회 1만명 목표

동성결혼법이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됐을 때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던 메릴랜드한인교회협의회(회장 권덕이 목사)가 최근 동성결혼법 반대 청원운동을 통과함에 따라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권덕이 목사는 "과거 반대 서명에는 교협 소속 교회들이 협력해 약 5,300명이 동참했다"며, "동성결혼법 반대 청원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메릴랜드 결혼연맹(Maryland Marriage Alliance)과 협력해 이번에는 한인사회에서만 1만명의 청원서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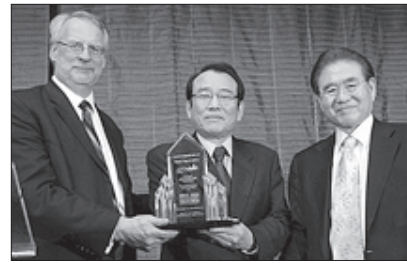
특히, 메릴랜드교협은 소속교회들의 웹사이트에 청원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메릴랜드 결혼연맹의 웹사이트를 링크시켜 효율적으로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주민투표에 이 안건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메릴랜드 내 유권자 가운데 5만573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할 경우 동성결혼법은 주민투표에 회부되고 11월 투표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주민투표 청원 웹사이트: www.marylandmarriagealliance.com

조요한 기자

손석완 장로, 뉴욕 '도시의 천사상' 수상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더욱 봉사 앞장서겠다"

뉴욕신학대학원(NYTS)이 지칭하는 올해 '도시의 천사상'(Urban Angel Award) 시상식이 3월 29일 저녁 맨하탄 만다린오리엔탈호텔에서 열려, 뉴욕교협 부회장을 지낸 손석완 장로(스태튼아일랜드연합장로교회)가 수상했다. 손석완 장로는 현재 뉴욕평동 자문위원으로 있고, 그동안 뉴욕교협 부회장, 뉴욕교협 이사장, 뉴욕직장선교협의회 회장, 스타튼아일랜드 한미협의회 회장 등 교계와 사회 단체장 자리를 두루 지내며 공헌해 왔다. 손석완 장로는 "제가 행한 것이 부족함에



왼쪽부터 뉴욕신학대 데일 어빈(Dale T. Irvin) 총장, 손석완 장로, 강현석 장로.

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봉사에 더욱 앞장서 사회를 밝히는 일에 힘쓰겠다"고 소

감을 밝혔다. 이날 손석완 장로 소개는 2006년도 도시천사상을 받은 바 있는 강현석 장로(새생명재단이사)가 맡았다. 한편 이날 국제사랑재단(총재 김삼환 목사, 미동부지회장 이병홍 목사)도 손석완 장로의 도시천사상 수상과 관련, 120년 전통의 상을 받은 것을 격려하는 축하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뉴욕신학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나눔을 실천하고 뉴욕 커뮤니티와 교회에 봉사하며 사회 발전에도 헌신한 이들을 선정해 2004년부터 이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거의 매회 한인 수상자가 나오고 있다. 김대원 기자

말씀 안에 신학이 있다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Jesus is risen!

2012년 봄·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징 및 소개 **전세계와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이카데믹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 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 혜택은 전학생 (50%)

-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점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영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명문 유망학교와 학점교류
- 통신강의 (이카데믹 학위취득)
 - ② Indian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수시접수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213) 503-5330 수시접수

HE IS RISEN!

DON'T BE AFRAID,
I KNOW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FOR HE HAS BEEN RESURRECTED,
JUST AS HE SAID.
MATTHEW 28

<교회 주요 행사> 2012년 5월 4일~6일
강사: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담임목사
주제: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 예배(M) 오후 12:50 (주일)
주일 2부 영어예배 오전 9:30 한글학교 오후 1:00 (주일)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4부 예배 오후 12: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 6:00 (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 전교인기도회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30
중고등부(E) 오전 11:00 (주일)

담임목사: 고태형

선한목자장로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el: (626)965-3443. Fax: (626)965-0404
http://sunhanchurch.com

십자가를 이해하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자를 처단하는 그런 사형틀이다. 통나무 두개를 서로 엮어서 3미터 높이로 세워 놓고 그곳에 흉악한 죄수들을 잡아다가 매달아 놓는 진을 빼서 죽이던 물건이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를 목격한 자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다. 모두가 나사렛의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 힘없이 죽어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영광을 얻으셨다. 그 이름은 2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입에 찬송과 영광으로 칭송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세계의 어떤 사형틀도 사람들의 목에 장신구로 사용되는 예가 없는데, 유독 십자가만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성스럽고 귀하게 여겨지는 상징물이 되었다.

나아가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 들이고 10년 후에 화폐에다 십자가의 모형을 새겨 넣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30년 후에는 죽은 사람의 관 위에도 고난의 표시로 이 십자가의 모형을 새겨 놓기 시작했고, 4세기 후에 가서는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종탑 위에 세우기 시작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며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다.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다.



김한요 목사
세리투스장로교회

예수님 십자가 흔적 좃으며 함께 걸은 슬픔의 길

새벽같이 아내와 함께 일어나 비아 돌로로사,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슬픔의 길’을 조용히 걸었다. 수많은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며, 여기 저기에서 깃발 든 단체 관광 손님들로 좁은 골목길을 가득 매웠던 그 때와는 달리 아직 기념품 가게들도 문을 열지 않은 인적 드문 길을 성경을 찾아 읽으며 걸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내어준 바 뒤 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며 넘어지시고, 또한 여러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14군데의 표시를 따라가 보았다.

이미 죽도록 체찍에 맞아 한걸음 걷기도 힘드셨을 주님은 머리에 억지로 씌운 가시로 만든 면류관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들로 시아가 가려졌을 것이다. 견강한 남자가 열심히 걷는다면 재판 받은 자리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15-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오래오래 채찍 맞으며, 넘어지시며 걸어

섰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용한 비아 돌로로사! 성경 읽는 소리 외에는 말도 건네지 않고, 주님이 걸으셨던 마지막 고난의 길을 묵묵히 묵상하며 천천히 걸었다.

로마 숫자로 5번(V)을 기록한 곳에 멈추었다. 예수님이 다섯 번째 멈추신 그곳은 구레네 시몬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넘어지셨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바로 그 장소였다(마 27:32). 아마 나라면 억지로가 아니라, 일론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메고 갔을 것 같았던 5번 장소였다. 그러나, 6번 장소에서 나는 그만 울고 말았다. 그냥 벽에 로마 숫자 6번(VI)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화려한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울린 것은 초라한 벽에 새겨진 숫자 때문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5번과 6번 사이는 걸어서 3-40보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말은 구레네 시몬이 3-40보도 대신 십

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고, 그 사이에 다시 예수님이 지시고 가다가 6번에서 멈추셨다는 사실이다. 방금 전 “나라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질텐데”라 생각했던 나의 의지가 몇 보도 못가서 깨어질 연약한 것이 깨달아지면서 울컥 울음이 올라오고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선 골고다에 올랐다. 그곳에는 성묘교회(Holy Sepulchre)가 세워져 있고,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카톨릭에 의해 새벽미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는 파이프울렌 소리가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자 하는 크리스천 순례자들 사이에 끼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그 곳에 조용히 앉아 비록 주님의 십자가를 30보도 지고 가지 못할 죄인이나, 생명 다해 십자가만 전하는 종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예루살렘에서 맞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뜨겁게 내 맘을 적시기를 기대하며,

주관적(主觀的) 사랑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하나님의 조건없는 주관적 사랑 그 사랑이 넘치길

옛말에 “콩은 남의 콩이 더 커 보이고 자식은 내 자식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쩨 수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객관적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동안 몇 번 우리 집 뒷마당에 관하여 설교와 칼럼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 년에 두 차례씩 굵은 열매를 무수히 맺는 오렌지나무, 늘 제 아내와 열매 숫자에 대하여 언쟁을 하는 단감나무, 조금 과장하면 작은 사과만큼 크게 열리는 대추나무, 지난 1년동안 식탁에 열매를 제공해 온 아보카도나무, 그리고 작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매실나무와 레몬나무, 특별히 돌보지도 않지만 모두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선물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을 방문하신 집사님이 뒷마당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자랑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에고, 나는 목사님이 하도 자랑하셔서 큰 정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작그마한 마당이에요”하며 실망스런 눈길로 쳐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오렌지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키가 작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동안 제가 너무 과장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머리 속에 거대한 과목이 울창한 정원을 그려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자주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 보아도 제 눈에는 우리집 뒷마당이 최고의 과수원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일까?’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오렌지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가 심고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큰 오렌지 나무보다 형

편없이 허실해 보이는 감나무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도 값이 싼, 겨우 새끼 손가락 굵기의 묘목을 심어서 그만큼 자랐으니까요. 금년에도 최소한 5백개 이상은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이처럼 주관적입니다.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만한 일을 헤드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 주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롬 1:4)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예수 공동체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BM예배 (대학부) 주일예배 오후 1:30

청년부 주일예배 오후 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말씀묵상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 오전 6:30 (토)

나침반한국학교 오전 9:15 (주일)



담임목사: 민경엽



기쁨으로 모이고 충만하여 증인되는
나침반교회

8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826-6187 / www.nachimban.org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롬 6: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

고문: 유웅열 목사, 양승걸 목사, 최학량 목사

공동회장: 박효우 목사

표세홍 목사

김부웅 목사

서기: 김영배 목사

회계: 김영구 목사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

<제 13회> 유동근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유동근 목사
한국 온누리선교교회

4장 15-16절,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은가?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곳이 이방의 갈릴리와 스블론과 납달리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주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셨고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오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 큰 빛이 비취었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고 그 해변으로 가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 같은데 성경에서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의 움직이심은 우연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사렛에서 배척당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기셨다고 하겠지만 아니다. 그분은 그곳으로 가야 했다. 고향 동네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분은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으로 옮겨 가셨는데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거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을 얻으실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큰 빛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흑암에 앉아 있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흑암이다. 앉아 있다는 것은 거기에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여러가지 좋은 게 많아도 다 흑암일 뿐이다. 그리고 사망의 땅이요 그늘이다. 그

러한 곳에 빛이 비취었다고 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는 언제부터를 가리키는가? 갈릴리로 오셨을 때부터이다. 이것을 볼 때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주님이 나사렛 곧 그분이 자라나신 곳에 계셨을 때에는 거기서 무언가 하시려고 해도 배척만 당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옮겨 오시자 그때부터 그분의 전파가 시작되었다.

그분의 전파와 요한의 전파와 동일한 것이었다. 우리는 3장에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한 것을 본다. 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외치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새롭고 신기하고 다르게 전파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요한은 분명 주 예수님과 비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가 전한 말을 그대로 이어서 하셨다.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흑암에 빛이 비취게 되고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국이 오게 된다. 우리는 ‘주여, 어서 천국을 이뤄주시옵소서’라는 찬송을 부르는 데 아직도 사망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함이 있다면 그건 아직 천국이 아니다.

나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서로 믿는 이들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 마음 속에 복잡함이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천국이라고 할 수 없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다. 그러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은 다 흑암이고 사망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에 빛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창 1:1-2).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가? 빛과 생명 이신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이

임한다. 사실 천국은 주님 자신이시다. 그분이 빛이시며 진리와 생명 이시며, 하늘의 왕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오실 때에야 천국이 시작되니까 주님도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천국이 임하지 않는가? 아직도 그 마음 속에서 주 예수님이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마음 속에서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신 것이다. 아직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다. 아직도 사람들의 원망, 핍박, 다투는 말 등 많은 역을 한 것들을 마음 속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위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한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실 때 거기에 천국이 있다.

주 예수님이 개인에게 임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있고, 가정에게 임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며, 교회에게 임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황량한 것이다. 그 반

대로 개인의 마음 속에, 가정에, 교회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인노릇을 하실 때 거기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흑암이 없다. 공허도 없고 혼란도 없다. 분쟁도 없고 미움도 없다.

우리 찬송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이 있다.

스블론, 납달리, 요단 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 왜 흑암에 앉아 있는가? 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가?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가 오실 때 거기에 천국이 왔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다. 회개는 천국의 서곡이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회개가 있는 날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날이다.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다른 많은 것들을 따르고 탐닉하던 것에서 그리스도께로 전환하는 이것이 곧 회개인 것이다.

→ 다음에 계속

“복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안정섭 목사
덴버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양치질을 하는데 갑자기 이 하나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라 급하게 치과를 찾아가 봤더니, 이 자체는 건강한데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

사님은 잇몸 치료를 하고, 결국 임플란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동안 이와 잇몸 치료에 들어간 돈이면 벤츠 하나 정도는 구입할 거라고 우스개소리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치아 건강과 치아 미용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건강에 중요한 것이 치아의 상태입니다. 치통이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다섯번째 안에 든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이 갑니다. 치아를 잘 관리하면 평생 틀니가 필요없이 자신의 이로 살아갈 수 있

다는데, 사실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오복 중의 하나라고 했나 봅니다. 어느 성도 한 분은 입을 크게 벌리고 호탕하게 웃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

다. 이유인 즉슨, 앞니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니가 없으니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거나 웃는데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분의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밝고 호탕해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빠진 앞니 사이로 복이 나간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 사이로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당당해지고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주변에서 이를 해 주겠다는 의사분도 계신데 오히려 제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빠진 앞니 사이가 복이 들어

오는 길이에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얼마나 열심히 새벽기도까지 나오는지 그제 그 변화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축복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은 사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곳은 결코 복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될 때 그 곳에 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좇아 다닙니다. 복이 많아 보이는 곳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좇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많아 보이는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그 복을 얻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조카 롯은 먼저 복이 많아 보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 복이 많은 곳처럼 보였고, 그 곳에 정착하면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복을 좇아 다니며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마음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선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에서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마음부터 바뀌면 됩니다. 빠진 앞니를 부끄러워하기보다 그 자리가 복이 들어 오는 길로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의 처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에 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다시금 소망해 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행 4:33)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00 3부 오전 11:45	주일예배(EM)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유아유치부 주일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주일예배(EM) 오전 10:00	중등부 주일예배(KM) 오전 11:30	고등부 주일예배(KM)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한글학교 SAT II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한국어 주일 오전 1:30	특별활동 주일 오후 2:10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el. 323-221-9531 / http://www.lacpc.org



부활하신 예수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롬 6:5)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 Fax: 310-530-8400
http://www.cornerstonetv.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장성건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364.2124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짐을 보우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liff Ave. Lancaster, CA 93535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금 삽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sasafterschool.blogspot.com

민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건강한 식안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2월 24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속성과정 학생모집 (원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출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플러신학교 시앙-양 탄 교수 미주장신대에서 사경회 인도



시앙-양 탄박사

리더십 위한 섬김인가 섬김 위한 리더십인가

로 그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란 것이다.

그는 리더십을 얻기 위한 섬김이 아닌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고 "아, 저렇게 섬기니 존경받고 리더십이 생기는구나"라 할 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리더십을 갖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섬기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이런 조건없는 섬김을 통해 진정한 리더가 되셨다.

그는 자신의 예도 들었다. 한 기독교 모임에서 그는 체어맨이었다.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Chairman이 아니라 모임에 앞서 의자를 정리하고 배열하는 Chair man이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그 의자들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정말 Chair man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Chairman이든지 Chair man이든지 건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의자를 나르면서,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 내가 느끼게 되는 감격과 감사는 결코 작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교회도 그렇지만 한인교회에도 전도사 시절이 지나면 교육 목사가 되고 교육 목사를 마치면 부목사, 부목사 후엔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임목사의 직위로 부르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위를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높은 직위, 강한 지도력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해선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기도 하시고, 물론 안 하시기도 한다.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다. 그러나 그는 "내가 Chair man이 되어 수개월을 기쁨으로 섬긴 후, 나는 실제로 그 모임의

Chairman이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갖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이 늘 있다. 교회 직분을 통해 섬기는 것조차 더 좋은 직분을 갖기 위한 수단화가 되기까지 한다. 섬김의 목적을 리더십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탄 박사는 "교회에서 리더를 양성해선 안된다"고 단언했다. "교회에서 리더를 키운다고 난리지만 사실 리더보다 제자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섬김을 통해 리더십을 인정받으려는 리더보다 예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 무조건 섬기는 제자가 필요하다. 진정한 섬김은 무엇일까? 첫째, 진정한 섬김은 사람 간의 기쁨이나 서로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는다. 거룩한 주님과 그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실행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둘째, 큰 섬김과 작은 섬김이란 개념은 없다. 담임목사는 큰 섬김이고 교회 사장은 작은 섬김이라 말할 수 없다. 셋째, 결과가 어떻든지 자유롭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되네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넷째, 기분이 안 좋거나 증후적인 감동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필요로 있기에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날 기분이 안 좋더라도 어떤 곳이 섬김을 필요로 한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섬김은 일회성이 아니라 삶 자체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섬김은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는 "결국 섬김의 과정과 목표, 결과는 모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며 "예수처럼 전적인 섬김으로 교회의 리더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리더들을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로 부활시키실 것"이라며 강의를 맺었다. 김준형 기자

카리스마적 리더십 혹은 제왕적 리더십의 시대는 가고 바야흐로 섬김의 리더십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의 모습에서 섬김을 통한 리더의 권위를 확인하는 이 리더십은 요즘 교회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된 개념이며 세상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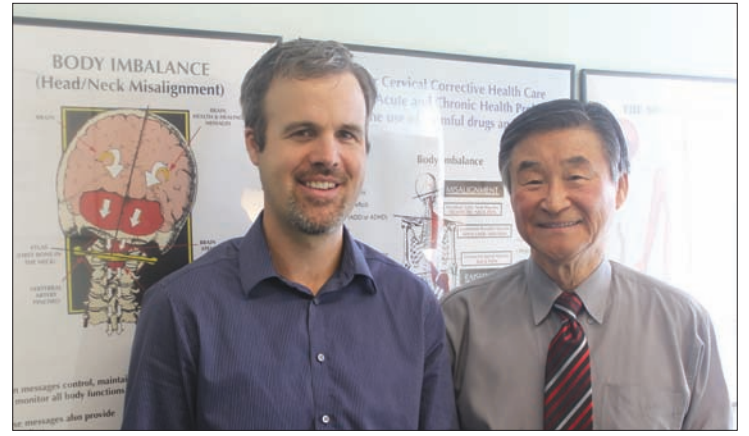
그러나 심리학자이자 목회자인 시앙-양 탄 박사는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실상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에서 섬김보다는 리더십이란 말이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가 29일 개최한 신앙사경회에 강사로 선 탄 박사는 "21세기 목회자의 지도력 개발"이라는 주제로 이날 모인 300여 학생과 교수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1985년부터 플러신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를 맡아 온 대표적 기독교심리학자이며 글렌데일의 중국인 교회인 제일복음주의교회의 담임이기도 하다.

그는 "21세기의 리더십에 관해 사람들은 종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말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나 그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리더십을 수식하는 수식어이듯, 사람들도 이 두 단어 중 섬김보다는 리더십이란 단어에 주목하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섬김의 리더십은 "내가 섬김의 행위를 통해 그에게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하도록 하려는 시도"다. 더 간략히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를 섬기는 것, 바



이 사경회에는 교수와 학생, 외부 인사 등 3백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상경추 치료로 건강 되찾으세요



닥터홀상경추교정병원의 닥터 홀과 한인 코디네이터인 존 최 목사

존 최 목사는 CRC 교단에서 20여년간 목회하며 한인총무를 역임하고 14년 전 은퇴했다. 요즘 그는 상경추 전도사로 통한다.

상경추는 목 뼈 중 가장 위에 있는 첫번째 뼈로 성인의 98%가 이곳이 뼈뺏어져 있다. 상경추는 척추의 시작점 이니만큼 상경추 탈골은 만병의 근원이라 부를 만하다.

그는 최근 OC목사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상경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전문의를 통해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바로 닥터홀(Dr. Hall)상경추교정병원을 통해서다.

최 목사는 이 병원의 한국어 담당 코디네이터로 있다.

-상경추교정병원에서 일하게 되신 계기는?

아내가 차 사고를 두번 겪으며 목이 꺾인 상태로 8년여를 살았다. 이로 인해 평소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나는 원목 훈련을 마치고 굿사마리 탄병원, 세인트빈센트병원, 가든그로브 종합병원에서 원목으로 5년간 일했는데 2002년 아내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 여성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닥터 홀을 만나 아내가 치료받고 건강해졌다. 이후 이런 좋은 치료법을 한인들에게 많이 보급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자칭 상경추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

-상경추가 무엇이며 이곳이 불편할 시 어떤 증상이 생기나?

상경추는 목 뼈 중 가장 위에 있으며 두개골을 받치고 있다. 머리 무게가 9에서 15파운드 정도가 되는데 1번 상경추의 경우는 2온스 정도 밖에 안된다. 이 약한 부위가 전체 두개골을 받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상경추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뒤틀어지면 중추신경계인 뇌에서 몸 전체로 내려가는 신경 에너지가 소모

되지 않게 된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뇌간 소통장애로 인해 약 4500여개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상경추교정병원에서는 이런 질병들을 일일이 치료하지 않고 그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상경추를 치료한다. 상경추만 온전히 치료되면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를 하게 된다.

이 과정은 치료라기 보다는 관리를 받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우리는 막힌 뇌간을 열어 치료하고 관리하지만 다른 병원들은 약물 투여나 수술을 사용한다.

-닥터 홀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그는 2피트 높이에서 머리를 곤두박질하며 떨어진 이후 2년동안 알 수 없는 신체의 고통을 경험했다.

그래서 가정주치의로부터 내과의, 신경내과의를 모두 만나 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상경추를 치료하는 곳을 만나 치료를 받고 1주만에 불면증이 그치고, 2개월 후 60%가 치료되는 경험을 했다. UC데이비스에서 지질학을 공부하던 그는 진로를 바꿔 클리블랜드의 카이로프랙틱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11년간 상경추 교정 치료를 하고 있다.

-상경추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

3단계다. 응급 케어 단계, 교정 강화 단계, 건강 유지 단계다. 균형이 깨어져 어긋난 상경추를 일단 교정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후에는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교정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안정이 되면 상경추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단계다.

처음 병원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 상담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은 LA한인타운(수금)과 카슨 시(화, 목,토)에 있으며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한국어 서비스: 213-494-7441

빅터 박 기자

Advertisement for iTalkBB featuring a woman on a phone, promotional text for international calling plan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details about AT&T, Verizon, and various global plans with prices like \$9.99 and \$14.99.



현대자동차 구입이나 리스에 관심 있으신 분

방문하시면
유명 골프장에서
두분이 무료로
라운딩 하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조건에 해당 되시는분께는 티켓 2장을 더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4/1~4/30

가장 많은 EQUUS를 보유한 북미 No.1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살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븐 장
213.235.6825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You said it. We heard it.
IN THE BOOTH.



*최고의 팀이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서비스로 모실것을 약속 드립니다.



*L.A. 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1-888-644-711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